

모자동실의 개별교육이 영아 돌보기 자신감과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박점미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Effect of a Mother–Child Shared Room on Self–Confidence in Infant Care and the Practice of Breastfeeding by Delivering Individual Education to the Mother–Child in the Shared Room

Jum–mi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모자동실에서 모유수유와 신생아 관리 등의 내용을 간호사가 산모를 1:1로 개별 교육한 군과 모자별실을 하면서 신생아실 내에서 모유수유와 신생아 관리에 관리 등의 내용을 단체 교육 받은 군 간의 영아돌보기 자신감과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자동실을 이용한 산모 50명, 모자별실을 이용한 산모 50명이었다. 영아돌보기 자신감 점수는 모자동실 개별교육을 시행한 군이, 모자별실을 시행한 군보다 통계적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자 동실이란 변수 외에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모자동실제도 정착을 통하여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증진되고 모유수유 실천의 장려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모자동실, 신생아, 자신감, 교육, 모유수유, 신생아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mother–child shared room on self–confidence in infant care and the practice of breastfeeding by delivering individual education to the mother–child in the shared room. The participants were 50 mothers in the mother–child shared room group and 50 mothers in the mother–child in separate rooms group, all of whom delivered children. The self–confidence in infant care was found to be higher in the mother–child shared room group than the mother–child in separate rooms group. It is necessary to conduct multilateral research into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practice of breastfeeding apart from a variable, namely, the mother–child shared room.

Key Words : Rooming in care, Confidence, Education, Breastfeeding, Infa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2022 Namseoul University fund.

*Corresponding Author : Jum–mi Park(jump@nsu.ac.kr)

Received April 24,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May 1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출산의 과정을 거치며 여성은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1]. 산후 초기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신생아의 전적인 신체적 돌봄과 아기와의 교감을 이루는 활동 속에서 많은 시간은 주로 신체적 건강을 돕는 일이다[2]. 특히 초산부는 산후 초기에 신생아 돌봄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여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더욱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1].

태어난 신생아의 어머니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모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생아 양육에서 자신감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모성 역할 획득이다. 모성 역할을 파악하는 적합한 지표는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인데[3], 어머니가 됨으로서 확립되는 모성 역할은 분만으로 자연히 학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 후에는 모자동실을 통하여 신생아를 돌보는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모성 역할을 습득하는 것이다[3].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어머니와 영아를 분리 수용하는 모자 별실이 많은 상태로 어머니가 신생아 반응을 파악하거나, 신생아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4].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출산과 산후기간에 부모, 조부모, 형제 등 가족들의 협조나 도움을 받았고 신생아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함께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가족형태의 변화로 현대에는 가족들로부터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며 또한 신체적 지지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5]. 또한 농경 사회에서는 여성의 자녀 출산수가 많으므로 분만 후 많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번의 학습 경험을 통해 신생아의 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모성 경험으로 습득하였다[6]. 출산율이 1인당 1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최근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직접 양육 경험의 기회도 감소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일은 주로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 태어난 신생아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신생아를 돌보는 일에 학습되지 않거나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여성은 신생아를 양육하는 일에 대하여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당황할 뿐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기까지하여 신생아의 정상적인 반응에도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낀다[1].

산욕기 기간 중 모자동실을 시행하며 간호사는 산부와

신생아의 모아 상호작용을 높이며 신생아 특징에 따른 일대일 교육과 신생아를 돌보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모자동실을 통해서 산부와 신생아의 격리된 환경으로 인한 분리를 막고 출산 후 산부가 신생아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시간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2]. 또한, 모자동실은 건강한 산모와 아기가 출생한 후 한 방에서 지내는 방법으로 부모가 신생아를 양육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함으로써 신생아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증진시킨다[3]. 또한 영아 돌보기 활동을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 산모가 만족스럽게 모아관계에 적응함으로써 신생아가 모유를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어 성공적인 모유수유로 이끈다[1,3]. 모자 동실 제도는 시대적,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많은 출산 여성들이 모자동실의 장점과 모자동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동실 제도의 실천률이 낮은 이유는 출산후 산부의 신체적인 불편감, 분만 후의 피로감, 신생아로 인해 수면방해가 될 것 같은 불안감, 신생아 돌봄에 관한 지식과 스킬 부족 등의 자신감 부족의 이유로 산부들은 산부와 신생아가 함께 있는 모자동실보다는 산부와 신생아가 따로 있는 모자 별실을 선호하고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후 병원에서 퇴원 시까지 산부가 지각하는 신생아에 대한 태도와 신생아 돌보기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파악하여 모자동실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모자동실에서의 개별 산모교육이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과 모유수유를 실천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모자동실의 개별교육이 영아 돌보기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다.
- 2) 모자동실의 개별교육이 모유수유 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모자동실에서 모유수유와 신생아 관리 등의 내용을 간호사가 산모를 1:1로 개별 교육한 군과 모자별

실을 하면서 신생아실 내에서 모유수유와 신생아 관리에 관리 등의 내용을 단체 교육 받은 군 간의 영아돌보기 자신감과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병원에서 2016년 6~7월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신 및 분만과정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고 아기의 체중이 2500 g 이상이며, 제태기간이 37주 이상에서 출산한 산모로 모자동실을 이용한 산모 50명, 모자별실을 이용한 산모 5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모자동실

분만 후 신생아의 대한 간단한 처치와 검사를 한 후 신생아는 산모 병실로 옮겨져 어머니와 함께 같은 병실에 12시간 이상 머무르며, 그 동안 어머니는 신생아를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14]. 본 연구에서는 제왕절개 분만 후 3시간, 자연 분만 후 1시간 이내 담당 간호사로부터 1:1 개별교육을 받아 산모와 아기가 한 병실에서 수유와 돌보기를 경험하는 체계를 말한다.

2.3.2 개별교육

신생아실 모자동실 담당 간호사가 5회/일 이상 산모 병실을 순회하여 1:1로 계획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3.3 모자별실

분만 후 어머니와 신생아는 분리되어 산모 병실과 신생아실에서 각자 머무르며, 어머니는 지정된 시간에만 신생아실 창문을 통하여 아기와 면회하거나 모유수유를 원할 때 수유실에서 수유하기 등의 영아 돌보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7]. 본 연구에서는 산모와 아기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으로, 필요시 집단교육을 통해 정보를 공유 하며 산모가 원할 경우 신생아실내 모유수유실에서 모유수유를 한다.

2.3.4 단체교육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내에서 모유수유 시간을 이용하여 30~40분간 인형을 가지고 구두로 모유수유, 퇴원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3.5 영아 돌보기 자신감

모아상호 작용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역할 획득과 모성 정체성 획득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어머니로서의 능력에 대한 감정, 일상적인 돌봄 수행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이다[3]. 본 연구에서는 Pharis[8]가 개발한 13개 문항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 도구로 평가한 점수를 말하며 1점에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돌보기에 자신감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3.6 모유수유 실천

WHO가 제시한 영아 분류체계[9]를 이용하여 I, II, III, IV 단계는 모유수유 지속으로, V 단계는 모유수유 중단으로 정의한다. I 단계는 100 % 완전수유, II 단계는 인공수유보다 모유수유를 많이 실천하는 경우, III 단계는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를 같은 빈도로 실천하는 경우, IV 단계는 인공수유보다 모유수유를 적게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V 단계는 100 % 완전 인공수유를 말한다.

2.4 연구 진행 절차

2.4.1 교육운영 현황

1) 모자동실시 개별교육

담당 간호사가 5회/일 이상 순회하여 병실에서 1:1로 산모에게 요일별로 계획된 교육을 시행한다.

- 분만 1일: 모자동실 안내, 영아 행동에 따른 대처방안, 기저귀 교환법 시범, 산모 상태에 따른 적절한 모유수유 자세, 보호자 교육
- 분만 2일: 목욕법 시범 및 신생아 관리
- 분만 3일: 퇴원교육

2) 모자별실 단체교육

신생아실 내 있는 모유수유실 안에서 모유수유 시간을 이용하여 30~40분간 인형을 가지고 구두로 모유수유, 퇴원교육을 시행하였다.

2.5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의 자료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로 S시 C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를 사전조사(출생시 몸무게: 2500 mg 이상, 제태기간: 37주 이상)하여 퇴원 당일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2.6 자료 분석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114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모자동실군 50명과 모자별실 50명을 포함한 1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영아 돌보기 자신감과 모유수유 실천정도는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사항에 따른 영아돌보기 자신감은 t-test, 일반적 사항에 따른 모유수유 실천정도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은 두 군 모두 35세 이상이 34명(68%)로 높았다. 교육정도는 대졸이 모자동실군 36명(73%), 모자별실군 28명(56%)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교는 모자동실군이 30명(60%)로 모자별실군 19명(38%)로 모자동실군이 많았다($X^2=4.842$, $p=.045$). 직업은 모자동실군 34명(68%), 모자별실군 35명(70%)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과적 특성으로 분만형태는 질분만이 두 군 모두 25명(50%)였고, 초산모가 모자동실군 31명(62%), 모자개별군 40명(80%)를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Rooming-in system (%)	Rooming-separate system (%)	X ²	p
Age (years)	25 ~ 35	16 (32)	16 (32)	.000	p>.009
	35<	34 (68)	34 (68)		
Education	High school	9 (18)	18 (36)	4.111	.128
	Undergraduate	36 (72)	28 (56)		
Religion	Yes	30 (60)	19 (38)	4.842	.045
	No	20 (40)	31 (62)		
Occupation	Yes	16 (32)	15 (30)	.47	.892
	No	34 (68)	35 (70)		
Type of delivery	Vaginal delivery	25 (50)	25 (50)	.000	p>.009
	Cesareansection	25 (50)	25 (50)		
Delivery experience	Primipara	19 (38)	10 (20)	3.934	.472
	Multipara	31 (62)	40 (80)		

3.2 산모의 모자동실 시행유무에 따른 영아 돌보기 자신감

영아돌보기 자신감 점수는 모자동실 개별교육을 시행한 군 3.25±.54로, 모자별실을 시행한 군 2.60±.42보다 통계적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67$, $p<.001$)(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self-confidence in caring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100)

Categories	Rooming in System (n=50)	Rooming separate system (n=50)	t	p
Self-confidence in caring	3.25±.54	2.60±.42	6.67	<.001

Table 3. Comparison of practice of breastfeeding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100)

Categories	n	%	X ²	p	
Rooming in System (n=50)	Breast feeding	24	48	.00	<.001
	Artificial feeding	26	52		
Rooming separate system (n=50)	Breast feeding	0	0		
	Artificial feeding	50	100		

4. 논의

본 연구는 모자 동실 중 산육기 환자에게 제공하는 개별교육이 영아 돌보기 자신감과 모유 수유실천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육기 환자 재원기간 중 어머니가 인지하는 영아에 대한 돌보기 활동 자신감을 측정하고 모자동실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모자 동실군에서는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3.25점으로 높았으며, 모자 별실군에서는 2.60점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는 모자동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힌 Huang 등[10]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산전 교육에서부터 모자동실에 대한 상담 및 계획을 세우고 모유 수유 의도를 포함한 영아 양육 자신감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영아 돌보기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산전 관리뿐만 아니라 산후에 제공되는 출산 후 산모와 아기간 신체적 접촉, 모자 동실 독려와 같은 간호사의 지지등을 통하여 영아 돌보기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자 동실 개별 교육군은 모자별실 단체교육 군보다 모유수유 실천정도가 높았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아기와 산모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완전 모유수유가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9]. 아기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해 모유수유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며 모자동실은 모유수유 성공의 키이다[11]. 또한 본 연구에서도 모자동실 군인 경우 모유 수유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모자동실 개별교육 군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은 평균 3.25±.54에 반해 모자 별실군 단체교육 군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은 2.60±.42로 높았다. 모자 동실 산육기 산모들은 아기가 산모의 곁에 있어서 모유수유를 시도하기가 쉬우며, 아기가 배고파할 때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아기의 울음을 듣고서 즉시 모유수유를 시행할 수 있어 알맞은 모유수유 간격이 조절 가능하여 모유 수유 횟수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모자 별실을 시행하는 산모들은 모자동실 시행 시 산모가 피곤하고 아기돌보기가 불안하며 잦은 면회객의 방문으로 인해 소란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신생아실의 모유 수유실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아기가 원하는 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유수유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았을 때, 모유 수유 실행의 저해 요인 중에서 병원 제도상 요인으로 분만 후 모아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모유수유 실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개 병원의 산육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모자동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영아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영아 돌보기 자신감과 모유수유 실천율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모자동실이란 변수 외에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G. L. Lopez, K. H. Anderson, J. Feutchinger(2012). Transition of premature infants from hospital to home life. *Neonatal Network*, 31(4), 207-214

[2] A. Tooten, H. N. Hoffenkamp, R. A. Hall, J. Braeken, A. J. Vingerhoets, H. J. van Bakel (2013). Parental perceptions and experiences after childbirth: A

comparison between mothers and fathers of term and preterm infants. *Birth*, 40(3),164-171.

[3] G. A. Golas, P. Parks (1986). Effect of early postpartum teaching on primiparas' knowledge of infant behavior and degree of confidenc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9, 451-459.

[4] S. H. Ahn, Y. M. Kim (2015). Association of parenting stresses, maternal role adjustment, and types of feeding during hospital stays at birth.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1(4), 262-271.

[5] S. Y. Cho, M. Y. Hyun (2019).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dimensions with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8(1), 1-11.

[6] E. A. Shea, E. Z. Tronick (1988). The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a research and clinical instrument for assessing maternal self-esteem.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4, 101-139.

[7] S. J. Reeder, L. L. Martin, D. Koniak (1992). *Maternity nursing(16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8] M. E. Pharis (1978). Age and sex differences in expectation for parenting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9] World Health Organization. Exclusive breastfeeding, 2002. Available at http://www.who.int/nutrition/topics/exclusive_breastfeeding/en/ Accessed January 10, 2021.

[10] Y. Y. Huang, J. T. Lee, C. M., Huang, M. L. Gau(2009). Factors related to maternal perception of milk supply while in the hospital.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7(3), 179-188.

[11] J. Y. Ha, Y. J. Kim (2013). Factors influencing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among early postpartum mother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1), 48-56.

박 점 미(Park-Jum Mi)

[상위]



· 2017년 2월 : 한양대학교 모성간호학 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모성간호학, 난임, 재가노인환자
 · E-Mail : jump@nsu.ac.kr